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516.27 (-304.33)	749.64 (-42.20)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3.895 (+0.047)	1480.15 (+1.65)		

삼성디스플레이
애플도 고객으로
OLED 시장 휩쓸다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車·조선·철강업계 넘어 하청업체까지 “이익 공유” 한 목소리 성과급 뛴 빠진 산업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N% 성과급이 국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업계에서 불어온 N% 성과급 바람은 실적이 좋지 않거나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들도 N% 성과급을 통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투자금 쌓아야 하는 기업이나
실적 좋지않은 기업까지 확산

“매년 노사갈등 있긴 했지만
산업전체 성과급 요구 이례적”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도
10%성과급 수정 가능성 내비쳐

한국GM 노조도 사측에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아 노조, 르노코리아 노조 역시 사측에 대한 막대한 성과급 요구를 준비하고 나섰다. 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의 추가 폐쇄를 예고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닛산은 2027년까지 글로벌 직원 2만명 감축을 선언하는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자동차 업체를 넘어 조선, 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상견례 이후 13차례 임단협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21일 14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화오션 노조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산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철강 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대비 150% 인상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업체들도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역이면서 N% 성과급을 통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포스코, SK에너지 등 대기업 발주처를 상대로 한 플랜트노조, 한화오션의 웰리브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간 협상 때마다 노사 갈등은 이어졌지만 올해처럼 산업 전체적으로 성과급 분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이례적이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고정비 증가로 기업의 투자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성과는 오랜기간 축적된 투자와 노력의 결실인데 이를 현재 구성원들이 독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성과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제도 설계 당시 예상보다 크게 뛰어넘으면서 구성원 보상과 주주가치의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도 폐지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간 교대조별로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조기 퇴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적함대’ 스페인, 16년만에 월드컵 우승

스페인 선수들이 19일(현지 시간) 미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라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AP·뉴시스

삼성바이오, 2.7조 빅딜... ‘비만약’ 도전장

CDMO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초격차 생산능력 등 3대 성장축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을 전격 품에 안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생산능력·폭넓은 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립 등 3대 성장 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바르에 본사를 둔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 그룹’과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폴리펩타이드 지분 100%를 확보해 인수를 최종 완료한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1996년 글로벌 제약사 페링의 펩타이드 생산사업부에서 분사했고 1000건 이상의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펩타이드 치료제에 특화된 경쟁력은 물론 1500여 명에 달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까지 갖췄다. 또 현재 스웨덴·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미국, 인도 등 5개 지역에서 6개 생산 거점과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 실제로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기존 수주 물량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계해 인수 직후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게 된다.

현재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글루카

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부터 항암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발맞춰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기술력을 내재화해 커지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항체 의약품 중심으로 생산 역량을 쌓아왔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오가노이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부문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지난해 초부터 ADC 전용 공장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고 오는 2027년까지 ADC 완제의약품 총선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코스피 6500 추락 ‘블랙 먼데이’

삼성·하이닉스 4%대 하락세
사이드카 발동... 올해 38번째

코스피가 6510선까지 밀려나며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논란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에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4.46%) 하락한 6516.27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38회(매도 20회, 매수 18회)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

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5.33% 급락하며 749.64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했음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점 통과 우려가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삼성전자는 이날 4.31% 하락한 24만 4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4.23% 하락한 176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에 따른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

터 시작하는 인공지능 업체들의 실적 시즌은 AI 수요의 지속성과 반도체주의 디레버리징 및 데레이팅 국면 탈출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알파벳의 경우 2026~2027년 설비투자(CAPEX) 가이던스 변화, 클라우드 중심 본업 수익성 개선 여부가 주목되며, 24일 인텔 실적발표에선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출하량 회복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I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투자심리를 가늠하는 핵심 선행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 따르면 코스피와 나스닥 100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5년 평균인 0.1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예비경선 D-1 친명·친청 신경전 고조... “친청계가 청년최고 무산” “가짜 뉴스”
▲송영길 “정청래,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에서 지도도 가장 높아”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최영종·최은식 의원 제명... 운영위, 찬성률 100% 의결
▲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선관위 수의계약 제한 등 담겨

▲이준석 “李 정부 부동산·주식시장 실패... 김용범 거취 표명해야”
▲외교부 국립외교원, 9개월간 해킹 당해... “시스템 긴급 차단”